

## 신이식 환자에서 발생한 경화성 복막염 1예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장연구소

김정은 · 황은아 · 박우영 · 장미현 · 윤정수 · 한승엽 · 박성배 · 김현철 · 김형태 · 조원현

### A Case of Sclerosing Encapsulating Peritonitis after Successful Kidney Transplantation

Jungeun Kim, Eunah Hwang, Wooyoung Park, Mihyun Jang, Jeongsoo Yoon, Seungyeup Han, Sungbae Park, Hyunchul Kim, Hyungtae Kim and Wonhyun Cho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Keimyung University Kidney Institute

**배 경 :** 경화성 복막염은 복막투석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나 환자의 이병 및 사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합병증이다. 주로 장기간 복막투석 치료, 잦은 복막염 등이 경화성 복막염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 확립된 치료법은 없으나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투여 및 수술적 박리요법이 치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장기간 복막투석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신 이식을 시행한 경우 이식 후 스테로이드 및 면역억제제를 투여받게 됨으로 경화성 복막염이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뿐 아니라 기존의 경화성 복막염이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은 신이식 후 스테로이드 및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는 중에 경화성 복막염이 발생한 예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 51세 남자가 복부 팽만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11년 전부터 복막투석치료를 받아오다가 1년 반전 뇌사자 신 이식을 시행받았다. 복막투석치료 중 복막염은 4차례 있었으며 모두 항생제 치료에 잘 반응하였다. 이식 후 면역억제제로는 tacrolimus, steroid, mycophenolate mofetil의 3자 요법을 투여받았으며 이식 6개월째 거대세포바이러스 위장관염으로 mycophenolate mofetil은 중단하고 ganciclovir 정맥주사 치료를 받았다. 입원 1개월 전부터 서서히 요량이 감소하는 소견이 보였으며 입원 2주전부터 복부 팽만이 발생하여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tacrolimus 3mg, prednisolone 5 mg를 투여 받고 있었다. 입원 당시 혈압은 130/90 mmHg, 맥박 78회/분, 체온 36.5℃이었으며 이학적 검사에서 심한 복부 팽만, 중등도의 하지 부종이 관찰되었다. 혈액검사서서 Hb 11.8g/dL, WBC 7060/μL, Platelet 289,000/μL, 혈청 크레아티닌 1.0 mg/dL, 알부민 3.8 g/dL, 총콜레스테롤 174 mg/dL, AST/ALT 18/18 IU/L, HBs Ag 음성 HBs Ab 양성이었다. 복수 천자 시 혈성의 복수가 관찰되었으며, 복수의 세포진 검사에서는 악성 세포 및 결핵균 음성이었다.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소장을 둘러싸는 다량의 복수가 관찰되었으며 부분적인 소장폐색이 관찰되었다. 복막투석 병력, 혈성 복수 및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의 결과로 경화성 복막염을 진단하였고, 간헐적으로 복수 천자를 시행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진단 후 4개월째 소장 유착에 의한 폐색으로 폐색 박리술을 시행받았으나 진균혈증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Key Words :** 경화성 복막염, 면역억제제, 신이식

Sclerosing peritonitis, Immunosuppression, Transplantation